

2012년 상반기

# 중국 경제 및 무역 동향

2012. 8.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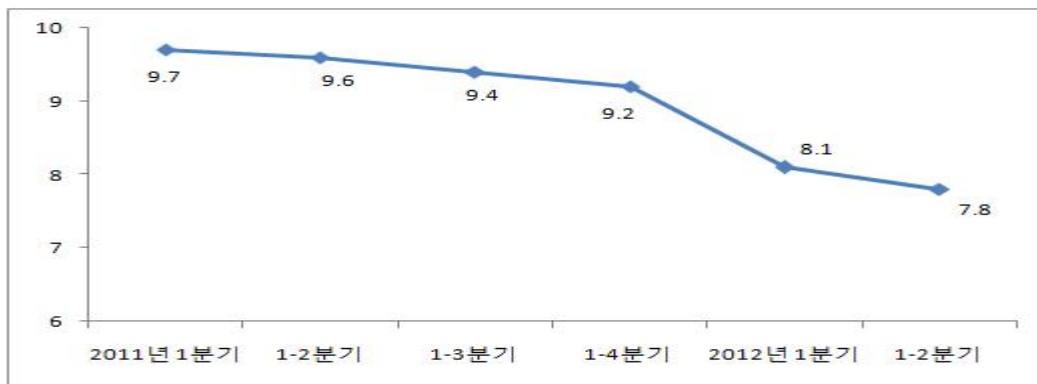
## 1 상반기 경제성장률

○ 중국의 201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7.8%

- 이는 중국 정부의 올해 GDP 증대 목표치 7.5% 보다 0.3%p 높음

## &lt; 최근 중국의 GDP 추이 &gt;

	액수 (억 위안)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2011년 상반기	204,459	9.6
2011년 하반기	267,105	9.0
2012년 상반기	227,098	7.8



자료: 국가통계국

○ 2012년 2분기 성장률은 7.6%로 하락하였으며 2009년 2분기(7.9%) 이후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로써 중국 경제성장률은 6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 &lt; GDP 전 분기 대비 성장률 &gt;

	전 분기 대비 성장률 (%)
2011년 3분기	2.4
2011년 4분기	1.9
2012년 1분기	1.8
2012년 2분기	1.8

자료: 국가통계국

○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은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파격 인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승인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 실시 중

\* 7월 6일, 1년 만기 예금금리 0.25%p, 대출금리 0.31%p 각각 인하

- 중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규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8%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함
- 그러나 IMF 및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7%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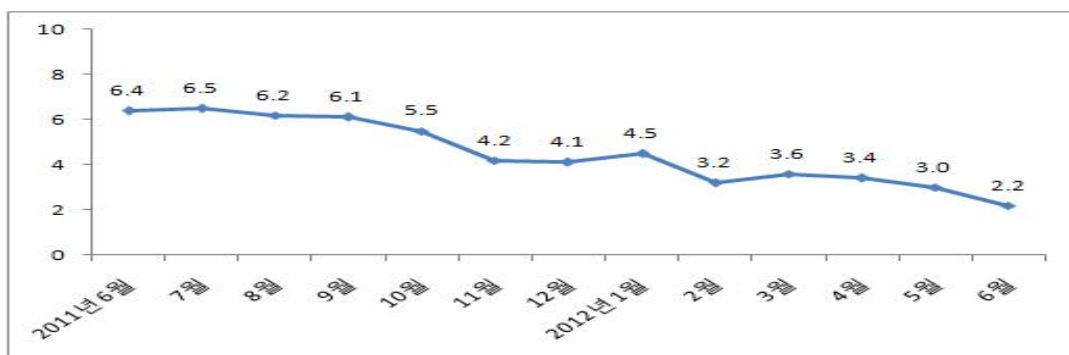
## 2 생산·판매 지수

○ 201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3%를 기록. 올해 4%대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7월 CPI는 1.8%로 6월 CPI(2.2%)보다 0.4%p 낮음. 정부의 지속적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30개월 만에 최저 수치 기록
- 향후 단기간 물가는 안정될 것이며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3분기 CPI는 2%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및 2012년 상반기 CPI지수 >

	CPI(%)
2011년	5.4%
2012년 1분기	3.8%
2012년 2분기	2.9%



자료: 국가통계국

- 2012년 6월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로 전달 대비 2%p 하락함
  - 7월의 PMI는 50.1%로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 특히 중소기업의 PMI 지수는 50%를 밑돌고 있음 (대기업 50.3%, 중기업 50.2%, 소기업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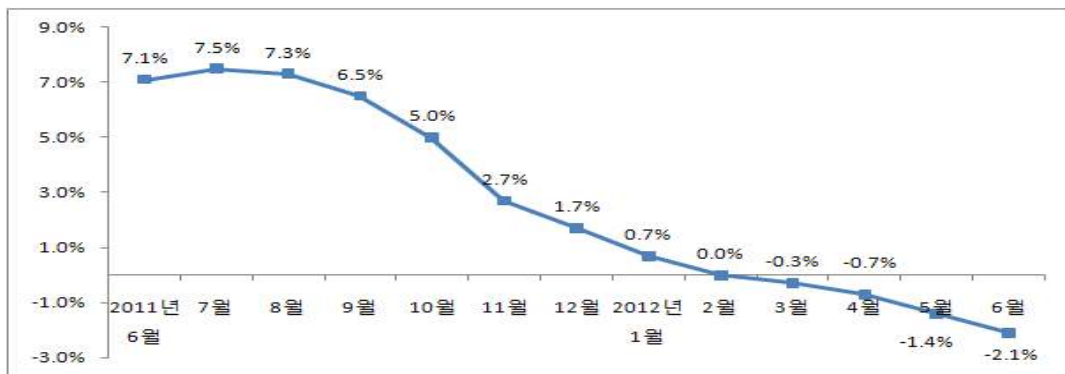
< 최근 PMI지수 >

시기	PMI(%)
2012년 1월	50.5%
2012년 2월	51.0%
2012년 3월	53.1%
2012년 4월	53.3%
2012년 5월	50.4%
2012년 6월	50.2%

자료: 국가통계국

-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2.1%이며 2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7월의 PPI는 -2.9%로 6월 대비 -0.8%p 하락

< 최근 PPI지수 >



자료: 국가통계국

### 3 고용시장 동향

- 상반기 중국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전됨.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는 694만 명으로 이미 2012년 목표 900만 명의 77%를 달성함
  - 신규 취업자 및 재취업 실업자 수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
  - 실업자 수는 918만 명이며 실업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4.1%임

#### < 최근 취업시장 동향 >

(단위: 만 명)

	신규 취업자 수	재취업 실업자 수	실업률
2011년3분기	321	146	4.1%
2011년4분기	227	117	4.1%
2012년1분기	332	139	4.1%
2012년2분기	362	155	4.1%

자료: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4 주택시장 동향

- 상반기 부동산 시장가격은 전반적으로 2012년 목표에 부합. 그러나 부동산 재고압력 증가, 수요증가에 따른 거래량증가 등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반등함
  - 따라서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3조 610억 위안이며 전년 동기대비 16.6% 증가하였음
  - 주택 투자는 2조 87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했으며, 전체 부동산 개발 투자액 중 68.2%를 차지함

### < 최근 부동산 투자액 추이 >

(단위: 억 위안)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억 위안)	(부동산 중) 주택 투자액 (억 위안)
2011년 상반기	26,250	18,641
2011년 하반기	35,490	25,667
2012년 상반기	30,610	20,879

자료: 국가통계국

### <전국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 1 총괄

- 중국의 상반기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18,398억 달러를 기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9,544억 달러, 수입은 6.7% 증가한 8,85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89억 달러

## &lt; 상반기 중국 수출입 실적 &gt;

(단위 : 억 달러, %)

항목	실적	증가율 (전년 동기대비)
수출입총액	18,398	8.0
수출액	9,544	9.2
수입액	8,855	6.7
무역수지	689	-

자료: 해관총서

- 2분기 수출입은 소폭 반등을 보였으며 수출입, 수출,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8.6%, 10.5%, 6.5%씩 증가하였음. 2분기 수출입은 1분기 대비 1.3%p 상승
  - 월별로 보면 4월 수출입 증가율이 6.1%인데 반해 5월은 11.1%, 6월은 12.4%까지 상승
- 6월 수출입총액은 3,287억 달러로 9.0% 증가. 수출은 1,802억 달러로 11.3% 상승했고 수입은 1,485억 달러로 6.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7억 달러 흑자
- 6월 수입은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했으나 전월보다는 하락. 중국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내수부진, 수입 상품가격 하락 등이 수입에 영향을 미침
  - 6월 수출은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했으나 전월보다는 하락. 국외 수요가 약하고 외국인투자의 수출 공헌도가 낮아졌음. 또한 수출상품의 원가상승 등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짐

- 7월의 수출입 총액은 3,287억 달러로 3.1% 증가. 수출액은 1,769억 달러로 1.0% 증가해 증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수입액은 1,518억 달러로 증가율 4.7% 기록
- 상반기 일반무역액은 9,751억 달러로 무역총액의 53%를 차지하며 가공무역액은 6,431.5억 달러로 무역총액의 35%를 차지

**< 무역방식별 교역현황 >**

(단위 : 억 달러, %)

구분	일반무역 (증가율)	가공무역 (증가율)
합계	9,751.0 (8.9)	6,431.5 (4.3)
수출	4,605.8 (10.1)	4,152.7 (6.4)
수입	5,145.2 (7.8)	2,278.8 (0.7)

자료: 해관총서

**2** 국가별 동향

- 상반기 EU와의 무역액은 2,678억 달러, 미국과는 2,311억 달러, ASEAN과는 1,878억 달러, 일본과는 1,620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음. 일본(-0.2%)·EU(0.7%)·한국(3.4%) 등에 비해 호주(14.8%)·미국(11.9%)·홍콩(9.7%)·ASEAN(9.7%)과의 무역증가세가 뚜렷
  - 신흥개발국 중 말레이시아(21.7%), 브라질(11.8%) 등과의 무역이 성장세를 보였으나 대 인도 무역(-3.0%)은 감소
- 상반기 EU는 중국의 제1수출시장의 자리를 미국에 내어줌. 대 독일 수출은 연속 4개월, 대 프랑스 수출은 연속 3개월 각각 하락. 대 이탈리아 수출은 작년 9월부터 지속적 하락세
  - 대만(-5.2%), 인도(-3.0%), 독일(-1.2%), 일본(-0.2%) 등과의 무역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 상반기 중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대상국/지역	수출입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총액	1,839,840	8.0	180,204	9.2	885,464	6.7
EU	267,821	0.7	29,962	-0.8	104,760	3.3
미국	231,121	11.9	30,968	13.6	65,804	7.9
ASEAN	187,821	9.7	17,777	16.8	94,301	3.5
일본	161,996	-0.2	12,213	8.1	88,354	-6.2
홍콩	147,465	9.7	27,653	9.7	8,105	9.9
한국	122,068	3.4	7,366	7.7	77,943	1.1
독일	79,413	-1.2	6,058	-3.9	45,437	1.0
대만	75,024	-5.2	3,218	-5.8	58,519	-5.0
호주	59,679	14.8	3,159	12.9	42,522	15.5
러시아연방	43,991	3.7	3,278	29.1	27,730	-7.0
말레이시아	43,687	21.7	4,028	14.9	23,905	27.8
브라질	41,079	11.8	2,959	6.5	25,559	15.2
인도	34,189	-3.0	3,986	0.3	11,512	-8.7

자료: 해관총서

### 3 품목별 동향

- 중국의 수출 품목이 전반적으로 질적 향상을 보임. 전기기계제품의 수출성장이 비교적 빨랐으며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우세상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함. 에너지, 자원관련 품목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였음
  -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무역증가율 목표 10%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수출

< 상반기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상품명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기기계품	550,250	10.5
*첨단기술품	271,834	7.9
자동 데이터 프로세싱 설비 및 관련 부품	86,961	11.6
의류 및 의류관련 부품	67,046	1.9
휴대용 무선 전화기 및 관련 부속품	48,003	23.9
방직실, 직물 및 제품	46,476	1.3
철재	26,150	5.2
가구 및 관련 부속품	22,460	26.1
신발류	20,855	9.7
집적회로	17,990	18.6
플라스틱제품	13,737	34.1
가방류 및 유사한 용기	11,398	11.2

\* 전기기계품과 첨단기술품은 위의 표에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은 관련 상품을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

- 전기기계품의 수출이 5,503억 달러, 첨단기계품이 2,718억 달러, 의류 870억 달러 등을 기록했음
- 기초원자재 중 정제유 107억 달러, 원유 12억 달러, 석탄 및 갈탄 10억 달러를 각각 수출
- 전통상품 중에서는 신발류 209억 달러, 플라스틱제품 137억 달러 수출
- 특히 옥수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6.6%, 귀금속 또는 도금한 귀금속 장신구가 133.8% 등 대폭 증가
- 한편 코크스 -76.7%, 강철조각 및 단조품 -48.5%, 석탄 및 갈탄 -36.3% 등 수출이 크게 감소

○ 수입

< 상반기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상품명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기기계품	361,321	0.4
*첨단기술품	224,037	2.3
원유	118,378	24.4
철광석 및 정광	50,802	-5.9
자동차와 자동차 새시	26,646	35.2
초기형태의 플라스틱	22,043	-4.1
단조 되지 않은 동 및 동재	21,006	29.6
정제유	17,172	4.0
대두	16,081	17.5
철재	9,224	-15.9
폐동	7,038	-5.7
비행기	6,420	43.3

\* 전기기계품과 첨단기술품은 위의 표에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은 관련 상품을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

- 기초원자재 중 철강 수입액은 9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9% 감소 (수량은 696만 톤으로 13.4% 감소), 원유 수입액은 1,184억으로 24.4%증가 (수량은 1억 4,007만 톤으로 11.0% 증가)
- 전기기계품은 3,613억 달러로 0.4% 증가했고, 첨단기술제품은 2,240억 달러로 2.3% 증가했음
- 자동차 및 자동차 새시 수입액은 266억 달러로 35.2% 증가 (수량은 61.4만대로 30.2% 증가)

## &lt; 최근 중국의 對韓 수출입 추이 &gt;

(단위: 백만 달러,%)

	수출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1년 상반기	118,066	20.7	40,989	26.5	77,077	17.8
2011년 하반기	127,567	16.7	41,953	15.4	85,632	17.4
2012년 상반기	122,068	3.4	44,145	7.7	77,943	1.1

자료: 해관총서

○ 상반기 한·중 무역액은 총 1,22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했음. 특히 중국의 대한 수출이 441억 달러(7.7% 증가), 수입이 779억 달러(1.1% 증가)임.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개별국가 중 중국의 제4위 무역국

\* 7월 한·중 무역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를 기록함 (수출은 69억 달러, 수입은 137억 달러로 각각 0.5%, 2.3% 증가)

○ 상반기 한국으로의 수출증가율(7.7%)은 중국의 전체 수출증가율 9.2%에 못 미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1.1%)도 전체 수입증가율 6.7%에 크게 못 미침. 2012년 상반기 한국의 총 수출증가율에서도 중국의 기여도가 일본보다 낮아졌음

○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둔화는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장악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대중 수출품목 중 중간재의 비중이 커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시장 자체도 위축되고 있어 불리한 여건임

○ 향후 중국의 수출 및 내수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 정부는 수출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도 달라질 수 있음